

# 데스크시각

오주승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들이 미국 건국 200년을 맞아 역대 대통령 41명(조지 부시 현 대통령 제외)의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는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란 책으로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평가 분야는 지도력·정치력·도덕성·위기관리능력·인사 등 5개 항목. 그중에서도 인사 부분이 눈에 띈다.

인사 분야 1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용해 내각의 조화를 이뤘고, 대법원장에 존 제이를 기용해 삼권분립의 기초를 닦았다.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들 널리 구했다는 점에서 역대 1위에 올랐다.

## 한국사회는 공직 경매중

풀씨는 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 그는 워싱턴과 정반대였다. 우선 내각의 중요한 자리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백악관 포커게임 멤버들을 대거 기용했다. 능력없는 자들의 발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만, 협잡과 공직매매, 범죄자 사면 등 정부의

모든 일이 돈으로 사고 팔렸다. 결국 하딩의 시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기로 기록되고, 그 또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불행으로 끝났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4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일 하나 만든 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4개월

## '호남 왕따' 시작됐다

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됐지만 지지를 급락의 밑바닥에는 현관없는 인사가 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팡부자)에 이어, '만사는 형(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한다'는 '만사형통'이란 말로 이명박식 인사는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 뿐인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놓고 선거캠프의 농공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공직 경매이자, 선거 승리에 따른 전리품 챙기기도. 전리품의 최우

선 순위는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공공기관·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 자리. 법으로 정해진 임기와는 무관하게 강요된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들은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했다. 선거캠프 일을 했던 사람을 무더기로 외교관으로 보냈다가 말썽이 나자 철퇴하고,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영사를 경질하는 외교적 결례쯤은 무시됐다.

그러나 하딩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자신과 친한 이너서클 인맥만을 기반으로 한 '코드 맞추기식 돌려막기'와 '회전문 인사'는 국정 파탄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호남이란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집단 왕따' 조짐이다. 왕따는 은밀하다. 겉으로는 뚜렷한 표가 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정한 인사를 외치고, 인구 대비 산출적 평균으로 포장된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호남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전혀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인촌 장관 해프닝. 평생을 '고향은 서울 충청도'라고 밝힌 서울 토박이 유 장관이 갑자기 호남 사람으로 둔갑했다. 부모님이 잠시 피란간 전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란

정부의 출신지 분류는 기가 막혔다. 호남인에 대한 현 정권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드러낸 한낱 코미디였다.

## 진보정권 10년 균형 무너져

이명박식 인사의 결정관은 지금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제로 밀려난 광주·전남 출신 공공기관장은 10여명. 또 다른 10여명은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런 식의 퇴출이 고위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데 있다. 중·하위직까지 무차별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채용된 중·하위 계약직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찌감치 퇴출대상으로 찍혔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따위는 무시됐다. 오직 어느 시기에 채용됐느냐가 기준이다. '공직 구조조정'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속내가 뒤통지는 뻔하다.

호남출신 공직자들도 좌불안석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소속인 이정현(혁신출신) 의원이 "특정지역(호남) 출신 공직자들은 현재 숨죽이고 있다. 당령의 인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을까.

그런 사이 수십년간 정부 인사에서 소외됐다 진보정권 10년사이 어느 정도 맞춰진 인사 균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가.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시설

## 국책·공약사업 예산까지 대폭 삭감할 건가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과여수엑스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은 심각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 삭감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광양항 관련 예산도 26% 삭감될 예정이고 여수엑스포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2천5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토해양부가 1천800억원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예산도 마찬가지다. 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려면 용지보상과 기본설계 변경 등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반영된 예산은 당초 2017년 완공 계획상의 재정운영액보다 줄었다. 이런 상태라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불가능하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국책사업이거

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양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특히 2012년 여수엑스포는 광주·전남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제행사다.

국책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까지 삭감해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하지만 국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특정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선 호남 차별의 악몽이 현실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서 지역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비리·추문 광주시의회 '시민의 대표' 맞나

광주시의회가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시의원이 이성평 의측에 연루돼 있는가 하면 모 의원은 복지법인 인과과정에 부당개입하고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위원을 윤리위원회조차 회부하지 않는 등 세 석 구급감싸기에 급급한 광주시의회 태도다. 비리 혐의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성평 연루 의혹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시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가 어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은 묻어내지 않는다.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3회 의원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쇄신요구를 묵살해 반목을 사고 있다. 광주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의장선출 방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만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년 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의원 자질 향상과 전문화를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최근 행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꼴이다.

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는 어제의 일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가져온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민주당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사고가 지역정가에 팽배해 있는 한 자질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3회 의원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쇄신요구를 묵살해 반목을 사고 있다. 광주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의장선출 방식과 지역 현안 등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정범도**

교육당국이 '학교는 □다'라는 편지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안에 긍정적인 내용을 채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교는 죽었다', 학교는 미쳤다'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까지 우열반을 편성한다고 하지 않는가? 서울의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버스로 경기도로 옮겨 새벽 2~3시까지 학원과외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우리 한국의 학부모들은 영혼이라도 팔아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한다. 아무리 박공이라도 영어, 수학, 논술 등 기본 교과과정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커질대로 커져 한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교육 관련주들을 집중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이제 교육 주권마저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다.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래서 사교육 관련주가가 떨어진다. 미국 정부는 한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요구에 의해 '투자자 국가 제도'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은가?

**학교는 □다**

우리 한국의 2008년 5·6 촛불 항쟁과 비교되는 프랑스의 68혁명때, 프랑스의 고등학생은 모두 거리로 뛰어나와 프랑스 모든 대학의 국립화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모든 대학교육의 공공화와 서열과 과를 이끌어 냈다는 말이다. 이러한 결과 현재 국민소득 4만불 정도의 유럽의 대학등록금은 1년에 5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1년에 1,000만원 시대를 돌파했다.

이제 촛불은 '미친 소'에서 '미친 교육'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의 미친 교육 현실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기성세대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학교는 아름답다.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2006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이동범**

지난해 4월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과시켰다.

또 1차 시범 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0월 중순 2차 시범 적용 학교를 대외 발표일이 강행했다. 그 결과 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무자격 교장은 전국적으로 1차 8명, 2차 9명으로 총 17명이 제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학교가 결정되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유감**

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신청 대상을 보면 내부형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개방형은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중 초빙형을 제외하고 내부형이나 개방형은 무자격 교장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미 공모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문제가 없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교장의 자격 요건 및 인성체제 강화, 교장 제임용의 엄격한 적용 등 기존

**학교 앞 문방구 어린이들에게 외상 거래 '총격'**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요즘 부쩍 장난감을 사들였다. 이상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모양을 봤다가 일요일 오후집 앞 문방구에 가서 가격을 물었더니 용돈으로만 갚았다고 어려운 고가 제품들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붙잡고 물었다니 아이가 태연한 얼굴로 하는 말 "엄마, 그거 외상으로 샀는데!"

신문이나 절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또 아이는 철이 없어서 그랬지만 문방구에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외상을 줄 수 있는지? 화가 나서 문방구로 쫓아간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우리 아이 뿐 아니라 외상을 하는 어린이 전용 '외상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

문방구 주인 말로는 외상을 하는 학생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며 물레 외상을 하고 외상값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 돈을 받으려고 반으로 찾아가기도 한다고 했다. 반면 가게에 미리 선불을 주고 아이가 달라는 건 뒤로 주라는 엄마도 있다고 귀띔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 부모들이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적은 돈이라도 자신이 구입한 물건값은 제때에 지불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無 等 鼓**

'전당포'하면 후미진 뒷골목에 음침한 모습부터 떠올리게 된다. 40대 후반 이상의 어른들은 어린 시절, 급전이 필요할 때 관할계 산다는 친구의 손목시계를 빌려 전당포를 이용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당포는 동전이 나온 고려 시대에 등장했다. 최고로 쳐주던 품목은 1950~60년대 재봉틀, 70~80년대 오디오 시계와 TV, 90년대 링크 코트였다. 이후 사라지는 듯하던 전당포가 최근 노트북에서 명품을 최고로 쳐주며 고급화의 대열에 합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너희가 명품을 아느냐' 같은 예세이로 이룬 날 일반 작가 나가쿠라 우사기의 작품에는 고급화된 전당포의 풍경과 함께 명품 중독증 고백이 배어 있다. 명품 수천만원어치를 단 하루에 사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하는 수없이 빚을 갚기 위해 명품을 들고 전당포를 찾았지만 빚을 갚는 대신 또 다시 명품을 사고 만다는 내용이다. 명품 중독증이 어찌

**명품 전당포**

간함을 읽을 수 있다. 1777년부터 프랑스 파리시청이 운영 하는 전당포엔 영세인이 하루 800명씩 그림, 은제품 따위를 들고 온다. 운영비를 얻 6% 이자만 받아 '파리시민의 빛'으로 통한다. 서구 전당포엔 빈민구제를 위한 공공의 전통이 남아 있다. 얼마 전 유명업소 여종업원들을 노린 서울 압구정동 무허가 명품 전당포 업주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명품 담보대출' 광고를 낸 뒤 감정의 60~70%를 빌려주고 한 달에 4~5%, 한 해 48~60%씩 이자를 뜯어냈다고 한다. 이들에게 걸려든 유흥가 여성이 자그마치 500명을 넘는다고 한다.

간관까지 내건 '명품 전당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명품이 싫증난 사람, 또 다른 명품을 사고 싶어 명품을 팔기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서민 애환이 담긴 전통의 전당포들은 사라지고 허영을 저당잡는 전당포들만 득실거리는 것 같아 못내 쓸쓸하다. /김우승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 <b>許宰浩</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禎榮</b> 논설실장 <b>金東永</b> 편집국장 <b>申港樂</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재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광안지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b>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